

'97년도 1차 이사회 개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崔亨燮**)는 6월27일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97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崔亨燮과총회장 주재로 열린 이날 이사회에서는 (가) 과학기술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 **金始中**과학기술포럼 이사장) 설치(안), 1997년도 예비비 사용승인, 국방과학연구소·(사)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LG전선 등 3개 회원단체 신규가입 심의 건 등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SK텔레콤 과총발전기금 3억원 기탁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7월16일 **崔亨燮**과총회장은 **徐廷旭**SK텔레콤사장으로 부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발전기금 3억원을 기탁받고 이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하였다(사진).

한편 이자리에는 **鄭助英**과총상임부회장, **金炳源**과총 부회장이 배석하였다.



창립50주년 기념사업 실시
대한전기학회

지난 1947년 7월 9일 창립한 대한전기학회(회장 **邊勝鳳**)는 올해로 창립50주년을 맞이하여 7월 한달 동안 창립기념행사를 치렀다.



▲ 대한전기학회 창립50주년기념식을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하고 있다.

학회 발자취를 재조명하고 21세기 과학기술선진화를 위한 세계화를 지향하는 과학기술선도 학회로서의 국제적 위상정립을 목적으로 실시된 이번 50주년 기념행사는 7월 9일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50주년 기념식 및 축하연을 시작으로 열렸다.

이어서 7월6일~10일까지 서울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97국제학술회의를 과총, 한전, 과학재단, 학술진흥재단 후원으로 개최, 20개국에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118편의 논문발표가 있었다.

또한 7월 21일~23일까지 강원도 용평리조트에서 14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840편(국내학회 단일 행사중 최대규모 발표논문편수)의 논문발표와 50년변천 사진전시회도 개최했다.

「재미과학 25주년역사 특집」 발행 예정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회장 **安世榮**) 25년 역사 편찬위원회가 추진해 오던 재미과학 25년역사 특집 「한미과학기술교류 100년과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의 역할」이 오는 12월경 출판될 예정이다.

이번에 출판되는 재미과학 25년역사 특집에서는 1882년 한미수호통상조약 체결이후 100여년동안 전개되고 있는 한미과학기술 교류 역사와 한미 과학자 및 기술자들을 중심으로한 한인이민사의 큰 즐거리

를 살펴봄으로써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 사실을 정리해 주기 때문에 한국 근대과학사 전문가들과 교육 및 언론기관 관계자들에게도 유익한 참고문헌이 될 것이다.

'97춘계학술세미나 개최

한국군사운영분석학회

한국군사운영분석학회(회장 金炯璇)는 지난 5월 30일 국방과학연구원 대회의실에서 '97춘계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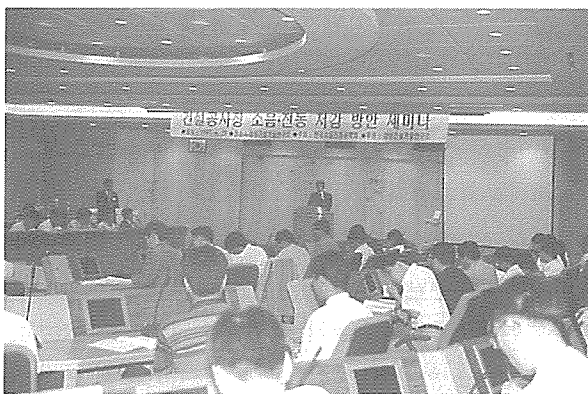
3백여명의 회원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金炯璇 회장(국방과학연구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George Lindsey교수(캐나다 전략연구소 자문위원)의 “캐나다

국방분야에 대한 운영분석기법의 응용”에 관한 특별강연이 있었다. 이어 조규필준장(육군 보병학교 부교장)의 “군 부대 경영혁신”, 공선표박사(삼성경제연구소)의 “인사관리기법의 흐름과 전망”, 양명석부장(쌍용양회)의 “우리나라 시멘트 산업의 물류관리” 등 3명의 주제발표와 참석자들과의 자유토론이 있었다.

건설공사장 소음진동 저감 방안 세미나 개최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한국소음진동공학회(회장 殷熙俊)는 6월 20일 삼성물산 건설부문기술연구소에서 최근 건설공사장에



▲ 한국소음진동공학회 殷熙俊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서 발생하고 있는 소음진동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건설공사장 소음진동”분야의 전문가들과 관계공무원, 국·공립연구소 연구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재수교수(원광대)의 “건설 소음·진동의 기초이론과 영향”, 장창훈서기관(환경부)의 “관련법규 및 분쟁조정 사례”, 최석주박사(삼성물산)의 “건설공사장 소음·진동 해외현황 및 저감대책” 등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아시아지역 수자원·수도 관리자 국제워크숍 개최

한국수자원공사



▲ 국제워크숍 환영리셉션에 참석한 한국수자원공사 林井圭사장(오른쪽에서 8번째)과 워크숍 참석자들

한국수자원공사(사장 林井圭)는 6월 17일~21일까지 5일간 수자원연구소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의 수자원·수도분야 관리자를 대상으로 수자원 종합 관리에 대한 국제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아·태지역의 수자원기관 및 관리자의 교류를 확대하고 수자원분야의 해외사업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의 수자원정책”, “인공호수의 수질오염과 대책” 등 한국적 수자원 개발모델을 사례중심으로 소개하는 한편 참가국들간의 수자원 문제해결을 위한 각국의 운영실태와 활동들을 상호교환하는 시간도 가졌다.